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둔 12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낚시배를 활용, 관내 해역에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선거 막판 부동산 표심잡기 총력전

민주당, 광주·전남 18석 싸움이 노리며 막판 굳히기

민생당·무소속, 여당 견제·인물론 앞세워 반전 기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출하는 4·15총선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막바지 부동산 잡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싸늘이할 기세며, 민생당 등 야당은 인물론에 초점을 맞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각 후보 진여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전투표에 지지층이 대부분 참여했다고 보고, 아직 지지 후보나 정당에 결정하지 않은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남은 기간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내세운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18석 가운데 16석을 휩쓸었다. 당시 민주당은 전남에서 단 한 석을 얻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국민의당이 쪼개지고 이 지역 의원들도 4분5열됐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민생당 깃발 아래 모여 텃밭 사수를 외치고 있으나 사정은 여의치 않다. 4년 전과 달리 구심점이 없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비상사국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분위

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부동산이 아직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후보들이 투표일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접전지에는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당 차원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어느 후보가 앞서고 뒤처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선거 막판에 민주당은 상대적인 지지율 우위 속에 승기를 굳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견제론'과 '인물론'을 앞세워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 선거운동도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고 불법 선거운동 등 돌발 변수를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지지세를 관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맞선 야권은 부동산 표심이 '민주당 견제론'으로 풀린다면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치열한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으로 급매지를 단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부동산 표심의 지지가 역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부분 현역 의원이 나선 민생당은 탄탄한 지지 기반과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들인 점을 파고들며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특히 총선 이후 민주당과 민생당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개혁 세력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아울러 일정 부문 지지 기반을 갖추고 높은 인지도를 앞세운 무소속 후보들은 총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신겠다는 '민주당 마케팅'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층을 흔들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투표에 공을 들이는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역구 후보들을 앞세워 정당 득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1야당인 마태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지역에서 정당 득표 10% 이상의 성적을 올린다는 목표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전국적인 상황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비교적 손쉬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서 "사전투표에서 전남이 전국 최고 투표율(35.77%)을 기록하고 광주도 32.18%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석 기자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 오늘부터 순차 지급

가구 인원 수 따라 30만~50만원 선불형 상생카드 교부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가계긴급생계비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가구는 통보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의 생계비를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된 광주상생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광주지역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계긴급생계비 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되지 않는다. 12일까지 가계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가구는 광주시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예상한 26만 가구보다 훨씬 많은 40여 만 가구에 달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소득조회 등 관련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세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가계긴급생계비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가능하며, 신청과 지급 관련 문의는 120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명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에 적극 참여해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초기에 신청이 밀려 지급대상을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가계긴급생계비는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4월 첫 주에만 29만여 건이 신청될 정도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 업무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소비쿠폰 교부 기간 등이 겹쳐 신청자 입력과 소득조회, 지급결정 등 관련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민생경제지킴이지원단 227명을 보조인력으로 지원하고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의 전 조직이 협력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등 총력을 기울여 소득조회를 마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최영범 기자

4·15총선 사전투표율 26.69% '역대 최고'

전남 35.77% 전국 1위...광주도 32.18%로 최고 수준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6시에 시작된 11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사전투표에 총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1천174만2천6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은 2017년 대선 때의 26.06%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4.75%로 뒤를 이었다. 또 세종 32.37%, 광주 32.18%, 강원 28.75%, 경북 28.70%, 경남 27.59%, 서울 27.29%, 대전 26.93%, 충북 26.71%, 울산 25.97%, 부산 25.52%, 충남 25.31%, 인천 24.73%, 제주 24.65%, 경기 23.88% 순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3.56%를 기록했다.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의 경

우 서울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나, 인천과 경기도는 밑돌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투표율이 28.8%로 여성(24.62%)보다 높았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투표한 사람(관외 투표자)은 272만4천735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의 23.2%에 달했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었다. 이번 총선 직전인 2017년 대선에서는 77.2%,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60.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자리 잡은 데다,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높은 투표 참여를 보인 만큼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2일 "총선 기록적 사전투표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15일 본투표에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